

노인이 인지하는 ‘좋은 죽음’ 의미 연구

- ‘복(福) 있는 죽음’ -

김 미 혜

(이화여자대학교)

권 금 주

(이화여자대학교)

임 연 옥

(이화여자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한국인의 가치와 정서에 근거하여 노인이 경험한 이야기를 통해 노인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고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노인 40명이었으며, 이들을 개별적으로 심층 면담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노인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의 대주제는 ‘복 있는 죽음’으로 나타났으며 소주제는 ‘부모를 앞선 자녀가 없는 죽음’, ‘자녀가 임종을 지켜주는 죽음’, ‘자식에게 부담주지 않는 죽음’, ‘부모 노릇 다하고 맞는 죽음’, ‘고통 없는 죽음’, ‘천수를 다한 죽음’, ‘준비된 죽음’ 등 7개였다. 연구결과에서 분석된 주제는 한국에서 말하는 오복 중 ‘죽음 복’과 일맥상통하고 있으며, 한국노인은 하늘이 주신 명을 다하고, 남은 삶을 통해 죽음을 준비하여, 깨끗하고 고통 없이 삶을 마감하길 바랐다. 또한 한국노인은 죽음에 대해 자손을 배려한 의미가 강하게 나타났는데, 삶에서만 아니라 죽음에 있어서도 자녀의 생존, 건강, 행복, 성공 등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노인이 바라보는 ‘좋은 죽음’을 이해함으로써 노인 개인의 바람직한 죽음 준비 자원 뿐 아니라, 사회복지 차원에서 노인복지 정책입안 및 실천 서비스 제공에 있어 노인의 남은 삶을 성공적 노후(Successful Aging)로 영위하게 하는데 함의가 있다.

주제어 : 한국노인, 좋은 죽음, 현상학적 방법, 죽음복

1. 서론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이며 피할 수 없는 경험이지만, 인간사회는 죽음을 생물학적, 자연적 현상 뿐 만 아니라 문화적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죽음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그 의미를 다르게 부여하고 있고, 죽음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즉, 죽음의 의미는 문화적으로 조건화되어 있으므로, 죽음 현상을 통해 나타나는 사고 및 행위는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라는 코드가 그 집단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의미를 이해하는 길이라면, 문화적 맥락에서 인간이 보는 죽음의 의미를 탐구하여, 그 구성원들의 갖는 사고 원형을 파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죽음에는 때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죽음은 생의 마지막 과정에 들어선 노인 세대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그러나 젊은이보다는 노인이 가까이 다가온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노년기에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생의 핵심 과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은 죽음 자체보다 ‘언제’, ‘어떻게’ 죽느냐 하는 임종에 대한 관심이 더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즉 ‘좋은 죽음(Good Death)’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다(김신미·이윤정·김순이, 2003: 95)고 이해된다.

‘좋은 죽음’에 대한 신념은 개개인의 입장과 문화에 따라 다르고, 맥락적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Benedict, 1991). 즉, 앞서서도 언급하였지만, 죽음 개념은 사회문화적 배경과 시대에 따라 다르며, 개인의 가치관, 철학, 삶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다르게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서구 문화권에서 말하는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은 한국에 적용되는 ‘좋은 죽음’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기에, 한국에서 한국 노인이 의미하는 ‘좋은 죽음’ 개념을 규명해 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 왜냐하면 문화를 공유된 의미체계로 본다면(Carolyn, 1991), 한국노인들이 인지하는 ‘좋은 죽음’에 대한 공유된 의미체계를 이해함으로써, 그 문화에 속한 개인들이 수용하는 ‘좋은 죽음’의 개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좋은 죽음에 대한 의미부여는 노인의 삶의 질과 연관되므로, 죽음에 관한 인식이 노인들의 삶을 재조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캐리쉬(Kalish, 1976) 역시 이를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노인들이 한정된 기간 동안 삶을 살면서 죽음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과 둘째, 노인들은 그들 주위에서 죽음과 관련된 불안감을 체험하면서 동시에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노년기에서 죽음의 의미를 직시하는 것은 노인이 삶의 마지막 단계를 적절히 준비하고, 죽음에 임박해 닥쳐올 여러 가지 변화에 적극적이며 생산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 노인이 의미를 부여하는 ‘좋은 죽음’의 이해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도 함의점이 많은데, 우선 소극적인 면에서 노인의 죽음과 연결하여 노인이 바라는 장례문화와 절차를 이해하고 실제적인 도움체계를 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적극적인 면에서는 노인의 남은 삶과 연결하여, 한국사회와 문화에 적합한 노인복지 정책과 서비스의 방향을 안내할 잣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가치와 정서에 근거하여 노인이 경험한 이야기를 통해 노인이 생

각하는 '좋은 죽음'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고, 그 요소를 한국의 문화적 맥락과 연결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살고 있는 노인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의 경험을 그대로 파악하는 질적 연구 중 현상학적 연구가 적절하므로, 이를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려 한다. 이는 단순히 노인에게 '좋은 죽음'을 위한 준비 차원을 넘어, 노인의 남은 삶을 성공적 노후(Successful Aging)로 영위하게 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2. 노년기 죽음의 의미

노년기에는 배우자의 사별, 퇴직, 신체기능 및 생산성의 저하, 죽음의 임박 등의 정신·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중 다른 생애주기와 다르게 노년기에는 죽음이라는 특별한 문제가 당면과제로 부각된다. 노년기에 자신 또는 타인의 죽음은 생물학적 현상으로 누구나 겪는 당위성을 갖고 있지만, 정신·심리적으로는 노인 개인의 삶의 태도와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이해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버트리(Butler, 1975)에 의하면 노인이 노년기에 접어들면 당연히 죽음과 자신의 붕괴하는 불가피한 현상을 자각하기 시작하고, 지나온 일생을 회고하며 자신의 성격을 재조직, 재통합하려는 행동경향이 있게 되는데, 이는 과거에 대한 회상을 통해 자아에 대한 새로운 사고, 과거경험과 그 의미의 재평가 등에 의해 나타난다고 하였다. Kalish(1976)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죽음에 대한 의식은 항상 수반되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지고 죽음이 다가온다고 자각하는 것은 그들이 남은 생을 어느 정도 유용하게 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여, Butler와 같이 노년기에 죽음에 대한 지각과 의미부여가 오히려 죽음을 수용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보고 있다. 서혜경(1987: 40-41)은 정신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주는 죽음을 직시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면, 나머지 인생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어려운 변화들에 적극적이고 생산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말함으로, 노년기의 죽음 직시가 남은 인생을 좀더 긍정적으로 보게 하며, 노년기의 심리적 적응을 성취하여 아무런 두려움 없이 죽음에 직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고 이해하였다.

따라서 노년기의 죽음의 의미는 지금까지 지나온 다른 어떤 시기보다 삶의 모든 영역에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 자신과 자신이 살아온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남아 있는 삶을 보다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고자하는 삶에 대한 태도와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3.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

죽음에 대한 태도는 개인의 가치관, 종교, 철학, 삶의 과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이해한다. 특히 노년기는 죽음이 임박해 옴에 따라 다른 연령에 비해 죽음에 대한

태도 정립이 중요한 과업 중 하나라 할 수 있는데, 단순히 공포와 불안감으로 죽음을 회피하는 태도로 죽음을 강하게 부정하기도 하고, 모든 인간이 겪는 자연현상이라 수용하고 죽음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하는 등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죽음에 대한 연구에서 해커트(Hackett, 1971)는 죽음 자체보다 죽음으로부터 오는 공포 때문에 더욱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였으며, 마이클(Michael, 1979)은 이와 같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임종과정에 대한 공포, 죽음 자체에 대한 공포, 사후결과에 대한 공포, 그리고 타인의 죽음과 임종과정에 대한 공포 등 4개의 요소로 설명하고 있다.

임종과 죽음에 단계 연구로는 퀴블로-로스(Kubler-Rose, 1969)가 임종과 죽음에 대한 단계를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5단계로 나누며, 이 임종과 죽음 5단계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는 것이 희망이라고 했다. 이 희망은 아직 포기하지 않은 삶으로 이 희망마저 포기하면 임종이 가까이 온 것이라 설명하였다. 디켄(Deeken, 1988)은 Kubler-Rose가 말한 희망을 6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 희망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서, 죽음의 수용단계에서 이 희망을 가질 때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한다고 하였다.

벨과 베티슨(Bell and Batterson, 1979: 59-76)은 죽음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주관적 연령, 성, 종교성, 배우자의 건강, 주거형태, 은퇴, 삶에 대한 만족, 사회경제적 지위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이 노인의 죽음 태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정하지 않다. 예를 들어, 성별과 죽음에 대한 태도 연구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죽음불안을 나타낸다는 연구보고(김이자, 1984; 서혜정, 1987; 조지연, 1989)가 있는 반면, 남자가 여자보다 죽음에 대한 불안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보고(김태현·손양숙, 1989; 김혜련, 1991; 윤남숙, 1994; 김권섭, 2000)도 있다. 반면 성별과 죽음의 태도는 상관이 없다고 밝힌 연구(박재현, 1989; 김대복, 1992; 양혜정, 1991)도 있어,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보고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단순한 요인으로 설명될 수 없는 복합적 차원의 개념(Multidimensional Concept)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의 국내 연구를 보면, 노인대학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김귀분(1977)의 연구에서 노인들은 죽음을 자연현상으로 삶의 마지막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하였으며, 장미란(1981)의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죽음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에 생활만족도, 자신이 지내온 생애에 대한 평가, 불안도, 내세에 대한 태도 등이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고 보고하여, 죽음에 대한 노인의 긍정적 태도를 증명하고 있다. 이에 반해 김태현과 손양숙(1984)의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었고, 성별, 연령, 사회적 및 가족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혜정(1991), 김혜련(1991), 박재현(1990)의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죽음 불안이 죽음 그 자체보다 죽어가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질병, 고통으로 인한 불안이 더 높게 나타났고, 자신보다는 타인에 대한 죽음 불안이 더 높았다. 또한 통계적으로 사회적 지지(가족, 친구 등), 성별, 교육수준, 연령 등이 죽음 불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자(1994)는 Q방법론을 이용하여 한민족 노인의 죽음정위(Death Orientation)를 연구하였는데, 이는 죽음체계의 주관성, 다면성, 포괄성을 고려하여 죽음에 대한 주관적 의미를 측정함으로써 한국인의

죽음에 대한 관념을 이해하는데 기여하였다. 조명옥(1997)은 동족마을을 대상으로 문화기술지 방법을 통해 노인이 죽음에 부여하는 의미와 죽음을 가꾸어 가는 노정을 연구하였는데, 노인들은 흠어져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죽음에 대처하기 위하여 죽음을 이야기로 표현하고, 욕심을 다스려 생애 대한 애착을 벗어나며, 죽음 후의 세계를 상정하고, 이(異) 세계로의 이동을 위하여 한과 응어리를 풀어 인연을 정리하고, 조상과 자손으로 정체감을 이산하여 존재의 영속을 꾀하며, 묘자리를 정하고 관리하면서 죽음의 행장을 차린다고 보고하여 죽음에 대한 노인의 경험을 전반적으로 설명하였다.

4. 노인의 '좋은 죽음'에 대한 선행연구

노인들의 '좋은 죽음'에 대해 국내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들은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나영·윤홍주·박일환·정유석과 유선미(2002)는 35명의 남녀 노인을 대상으로 9개의 초점 질문을 이용하여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노인들은 적절한 수명, 무병사, 자식이나 부인을 먼저 보내지 않고 죽는 것, 자손들에게 폐 끼치지 않고 죽는 것, 가족들이 다 있는 앞에서 죽는 것, 자손들이 다 잘사는 것을 보고 죽는 것, 수면사, 무통사로 죽는 것을 '좋은 죽음'으로 보고 있었다. 김과 리(Kim and Lee, 2003)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좋은 죽음의 요소를 통증 조절을 포함한 안위감, 타인에게 부담되지 않는 것, 가족과의 원만한 관계, 장례준비를 포함한 죽음 준비, 영속성에 대한 믿음의 순으로 보고하였다.

김신미·이윤정과 김순이(2003)는 양적 연구방법을 통해 노인과 성인은 '좋은 죽음'은 노환으로 사망하는 것, 70세 이후에 사망하는 것, 집에서 임종을 맞는 것, 1개월 미만의 임종기간, 임종기 동안 가족과 함께 하는 것, 임종기 동안의 독립성, 죽음에 대한 인지, 유언 남기기, 임종기 동안의 자율성, 임종기 동안의 의료비, 통증 없는 것, 종교, 호스피스, 무의미한 생명연장술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은숙과 김귀분(2002)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소망에 대한 의미를 지오르기(Giorgi)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여기서 10번째 소망으로 죽음에 대해 '행복한 끝맺음'이라는 중심의미를 찾아내고 이 중심의미는 편안한 죽음, 적절한 시기의 죽음, 사후 처리, 죽음에 대한 완벽한 준비의 4가지 주제로 구성됨을 확인하였다.

'좋은 죽음'에 대한 이상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편하게 아프지 않고 죽는 것, 적절한 나이에 죽는 것 외에는 공통된 연구 결과를 찾기 힘든데, 이는 그 연구방법들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양적 연구는 연구자가 제시하는 질문 문항과 그 항목들에 의한 응답내용에 제한이 생기며,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에 따라 자료가 충분히 수집되지 않을 수 있고, 연구 대상자의 숫자가 적어 대표성이 결여되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아직까지는 노인의 좋은 죽음에 대한 국내 연구물들이 수적으로 부족하여 현재의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제한점이 있다.

5. 연구방법 및 설계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국노인이 말하는 성공적 노후의 요인을 알아보고자 65세 이상의 노인 40명을 대상으로 2003년 3월부터 5월까지 1차와 2차 두 차례에 걸친 심층면담과 관찰을 통해 얻어낸 자료를 활용하였다.

8명의 연구 면담자는 사회복지학, 간호학, 소비자인간발달학을 전공하는 박사과정생들로,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서 노인과의 심층면접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본 조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각 연구자들이 2명의 노인과 예비 면접을 실시하여 질문내용과 질문방식에 대해 토의하여 심층면접을 준비하였다.

심층면접은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와 같은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물음으로서 시작하여 노인이 생각하는 ‘성공적인 노후’에 대한 개방적 질문을 함으로서 자료를 수집하였고, 그 심층면접의 내용 중 ‘좋은 죽음은 어떠한가?’ 또는 ‘잘 죽는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라고 노인에게 물었다. ‘좋은 죽음’과 관련된 노인의 이야기와 원 자료를 검토하여 다른 질문에서 나온 죽음과 관련되어 언급된 이야기를 모두를 추출하여 분석 자료로 삼았다. 분석 자료는 질적 연구방법 중의 하나인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2) 연구 대상자 선정

(1) 표본 추출

본 연구에서 자료를 제공한 연구 대상자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먼저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40명으로 구성되었다. 미리 전화하여 연구 대상자가 면담에 편하게 임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성별, 나이(65세이상 75세미만, 75세이상), 경제적 여건(상·중·하)을 고려하여 할당 표본 추출 방법을 사용하여 선정되었는데, 경제적 상층은 노인의 월 소득이 약 200만원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였고, 경제적 하층은 가능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사회복지관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받는 저소득층 노인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부부의 경우 한 사람만을 면접하도록 하였고, 연구 대상자와 조사자가 1:1로 대면하여 심층면접을 하였다.

대상자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 대상자는 여자 25명, 남자 15명이었고, 연령은 65세 이상 70세 이하가 11명, 70대가 21명, 80대가 6명, 90대도 2명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노인들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연구 대상자의 교육수준은 국졸이하가 12명, 중졸이 7명, 고졸이 9명, 전문대졸이

상은 12명이었다. 결혼 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18명,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이 21명, 이혼한 사람이 1명이었고, 경제적인 수준은 상층이 15명, 중산층이 10명, 하층이 15명이었다.

(2) 연구 대상자에 대한 고려

연구자는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모스(Morse, 1997)의 '동의과정'을 이용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먼저 설명하였다. 즉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어느 때라도 철회할 수 있고, 면담이 진행되는 과정 동안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면담한 내용에 대해 익명으로 처리가 되어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여 이해시켰다. 그리고 면담한 내용은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과 연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면담내용을 녹음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였으며, 연구 대상자는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면담에 참여하였다. 연구 대상자가 연구 참여에 대해 이해한 후 연구의 내용과 목적에 대해 기술된 동의서에 서명을 받거나, 구두로 동의한 내용을 녹음하였다.

3)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심층면접은 연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면담을 할 시간과 장소를 미리 정하였는데, 경제적 중층과 상층의 경우 주로 연구 대상자의 집에서, 경제적 하층은 연구 대상자들은 집 주변의 조용한 벤치, 경로당, 복지관 등에서 주로 실시되었다. 평균 면담횟수는 2회이고, 필요한 경우 3회 심층면접까지 실시하였다. 1회 면담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렸으며, 면담의 시작은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자신의 일상에서의 경험과 생각을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면담 내용은 연구 대상자의 동의 하에 모두 녹음하였으며, 그 날 인터뷰하여 녹음한 내용은 바로 글로 옮겨 써서 녹취록을 만든 후 이를 컴퓨터 디스켓에 저장하였고, 또한 이것을 인쇄한 것을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자는 자료 수집과 분석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날 인터뷰한 내용은 그 날을 넘기지 않고 녹취록을 만들도록 함으로써 다음 자료수집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으며 2차 인터뷰의 성격을 결정하였다. 2차 면담에서는 1차 면담에서 미처 이야기하지 못한 내용이 없었는지 물어봄과 동시에 1차 면담 후 연구참여자들이 새로이 생각난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였으며 1차 면담 내용 가운데 애매모호한 부분을 재확인하였고, 면담 내용 중에서 연구 대상자가 난처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삭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자료 분석방법

'좋은 죽음'에 대한 노인들의 의미를 이해하기 본 연구는 인간이 경험하는 현상의 의미를 밝히는 현상학적 방법을 이용하였다. 현상학적 방법은 대상자의 기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간이 경험하는 현상의 의미를 밝히는 것으로, 귀납적이고 기술적인 연구 방법이다(최영희, 1993; 김분한 외, 1999). 현

상학적 방법은 연구 대상자가 서면 혹은 구두로 제시한 기술을 원자료로 하며, 기술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현상의 본질을 찾아내고, 연구 대상자가 경험하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연구참여자인 노인들의 이야기를 분석함으로써 노인의 삶 속에 이해하는 ‘좋은 죽음’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현상학적 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밴 매넨(Van Mannan), 지오르기(Giorgi), 밴 캄(Van Kaam), 콜라지(Colaizzi) 등 여러 학자들에 의해 분석틀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녹취한 면담자료를 읽으면서 대상자의 이야기 중 죽음에 대하여 나타나는 에피소드를 발췌하고 기술하여, ‘좋은 죽음’에 관하여 기록된 것을 콜라지(Colaizzi, 1978)가 제시한 방법을 기반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콜라지의 연구방법은 메를로-퐁띠(Meleau-Ponty)의 철학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는 인간의 심리적 경험은 관찰될 수 없지만 그러한 경험은 인식 하에 놓여 있으며 지각을 통해 기술한다고 봄으로, 인간의 경험적 인식을 설명하고자 할 때 유용하다. 또한 연구 대상자의 개인적 속성보다는 연구 대상자의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료 분석과정은 다음의 7단계(Colaizzi, 1978; 최영희, 1993)를 따랐으며 그 단계는 다음과 같다.

단계 1. 연구현상과 관련된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선택하여 의미 있는 진술(Significant Statement)을 추출해 낸다.

단계 2. 의미 있는 진술들을 주의 깊게 보면서 중복되는 표현은 배제하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재진술(General Restatement)한다.

단계 3. 의미 있는 진술과 재 진술로부터 의미를 구성한다(Formulated Meaning).

단계 4. 구성된 의미를 주제(Themes), 주제모음(Cluster of Themes)으로 범주화한다.

단계 5. 분석된 자료를 주제에 따라 총체적으로 철저히 기술한다.

단계 6. 선행단계에서 확인된 경험현상의 공통적인 요소를 통합하여 본질적 구조를 진술한다.

6. 연구 결과

콜라지(Colaizzi)의 분석단계에 따라 충실하게 진행된 본 연구는 먼저 연구 대상자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얻는 내용들을 전부 녹취록으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기술된 면담내용들을 여러 번 반복하여 읽은 과정 속에서 28개의 의미 있는 진술들을 찾아내었고, 비슷한 내용의 의미 있는 진술들끼리 분류하여 7개의 범주화하였다. 연구자들은 범주화된 의미 있는 진술들에 대해 재 진술 과정으로 그 의미를 대표할 수 있는 7개의 소주제를 정하였고, 다시 7개의 소주제들이 지닌 의미를 통합하는 대주제를 ‘복(福) 있는 죽음’으로 찾아내었다.

1) 대주제(Theme) : ‘복(福) 있는 죽음’

(1) ‘복(福)’의 개념

우선 대주제로 나온 ‘복(福) 있는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복(福)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복(福)은 사전적 의미로 편안하고 만족한 상태와 그에 따른 기쁨, 좋은 운수라고 설명하고 있어 복(福)은 일상 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복(福)이란 하늘의 신, 즉 하느님이 사람에게 내리는 배가 볼록한 단지라는 것에서 사람의 힘을 초월한 ‘운수’라는 뜻과 ‘오붓하고 넉넉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복(福)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행복이나 길운(吉運) 등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복(福)이 단지 인간에게 주어지거나, 초월적인 존재가 인간에게 내리는 운명적 의미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복(福)은 자신이 노력을 해서 얻는 것과 하늘이 준비해 주는 두 가지 개념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을 하면 복 달아난다’, ‘아내를 잘 얻는 것도 복이다’라는 속담에서도 보듯이 단순히 운명적인 요소만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 불교에서도 복(福)은 흠쳐서 받는 것이 아니라, 각 생명체 나름대로의 자기 복(福)대로 영역이 있다고 하며, 복(福)이 많고 적음은 인간의 타고난 운명에 의해 결정나는 것으로 설명하고도 있지만 반면, 항상 마음을 온화하고 아름답게 쓰면 복전(福田)이 된다고 하면서 복(福)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짐도 무시하지 않고 있다. 즉 복(福)이란 자신의 노력과 하늘이 준비해 주는 개념이 모두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 ‘복(福) 있는 죽음’의 의미

하늘이 내려주는 것과 더불어 자신의 노력으로 인간에게 가장 바람직한 삶을 갖게 하는 복(福)에는 크게 오복(五福)이라는 개념이 있다. 오복(五福)은 민간에서 전해지는 것과 유교에서 말하는 것이 조금 다른데, 우선 민간에서 말하는 오복(五福)은 첫째, 치아가 좋은 것(잘 먹는 것, 건강한 것을 의미), 둘째, 자손이 많은 것, 셋째, 부부화로 하는 것, 넷째, 손 대접할 것이 있는 것(대접할 풍부한 재산이 있는 것), 다섯째, 명당에 묻히는 것(죽어서 명당에 묻혀 자손들에게 복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이라 하고 있다. 반면 유교에서 말하는 오복(五福)은 동양 유학(儒學)의 경전인 서경(書經)에서 첫째는 수(壽)로 장수(長壽)하는 것을 의미하고, 둘째, 부(富)는 부유한 삶을 영위하는 것, 셋째, 강녕(康寧)은 우환이 없이 편안한 것, 넷째, 유호덕(攸好德)은 덕을 좋아하며 즐겨 덕을 행하려고 하는 것, 다섯째는 고종명(考終命)은 천명(天命)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민간에서 말하는 오복(五福)과 유교에서 말하는 오복(五福)의 내용이 다르기는 하지만, 다섯 번째 복인 명당에 묻히는 것, 천명을 다하는 것(고종명) 등은 공통적으로 죽음에 대한 복(福)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복(福) 있는 죽음’을 인간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조건으로 보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복(福) 있는 죽음’은 곧 삶의 질과 연결되며, ‘복(福)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인에게 있어 삶의 마무리를 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과업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민간에서 전해오는 오복(五福) 중 ‘명당에 묻히는 것’은 노인 자신이 명당에 묻힐

정도의 부와 명성을 이루었음도 의미할 수 있지만, 무덤자리로 명당을 보는 것은 자손의 복을 의미하는 것이 더 옳은 해석이라 할 수 있어, ‘복(福) 있는 죽음’은 노인의 개인적 생애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의 질까지도 확대하여 그 의미를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자손과 연관된 ‘복(福) 있는 죽음’ 의미는 노인의 살아 있는 동안에도 밀접한 관계를 가질 뿐 아니라, 사후까지도 자손의 번창함 정도에 따라 그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를 이해하게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인 노인도 오복 중 하나인 ‘복(福) 있는 죽음’을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의미로 호상(好喪)을 맞이하는 것으로, 연구 대상자들은 노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곧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면서, 깨끗하고 고통 없이 삶을 마감하는 바람을 표현하였다. 또한 자식을 앞세워 보내지 말고, 자녀와 주변에 부담이 되지 않는 적당한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복이라고 표현하여 한국문화에서 말하는 ‘복(福) 있는 죽음’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2) 소주제(theme Cluster)의 의미

대주제인 ‘복(福) 있는 죽음’을 도출한 근거가 되는 노인이 말하는 ‘좋은 죽음’의 7개의 소주제는 다음과 같다.

(1) 부모를 앞선 자녀가 없는 죽음

연구 대상자는 ‘복(福) 있는 죽음’에 대해 모든 자녀가 존재하여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 자녀가 자신보다 앞서서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불행한 일로 의미를 두고 있어, 이런 면에서는 자녀에게 더 이상의 기대나 욕심을 갖기보다는 그저 건강하게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라는 표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소주제의 의미 이해는 다음과 같은 근거자료로 설명할 수 있다.

- 내 자손이 있잖아. 자손들이 있으면 그 자손들이 내 앞에서 훗날 안보이고 다 살아서 있는 게... 그게 호상이라고 생각해
- 내 앞에 거저(잘) 살아주면 끝나는 거야. 내가 오래 살기 때문에 내 앞에 나쁜 일만 안보고 잘만 살아주면... 밥 세끼 먹고 건강하게 살아 주면...
- 우리 딸이... 내일이 우리 외손자... 둘째 딸(두번째 외손녀)이 생일이잖아. 그런데 즈그 애미(저희 엄마)가 있으면 즈그(저희) 새끼 뭐라도 해 먹이라고 전화를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없어서 (딸이 죽어서). 지금 육년 됐는데... 잊어버려야 되는데 못 잊어

(2) 자녀가 임종을 지켜주는 죽음

연구 대상자는 ‘복(福) 있는 죽음’에 대해 자식들이 임종을 지켜보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이는 첫째 소주제와도 연결하여 우선 모든 자녀가 생존해 있어야 가능하며, 물리적으로 임종 시 모든 자녀

가 참여하는 가운데 눈을 감기를 원하고, 죽은 후 장례 또한 자녀가 감당해 주는 것을 요구한다고 이해된다. 연구 대상자 중 자손이 없는 노인인 경우 자신의 시신을 감당해 줄 자손이 없는 것을 매우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도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주제의 의미 이해는 다음과 같은 근거자료로 설명할 수 있다.

- 그 노인네 그 얼마나 호강이야 ... (중략)... 자식 앞에서 죽었으니
- 죽을 적에 어떻게 죽을까 걱정이지. 안들진(안하진) 않지, 그렇지만 자식이 있는데 뭐 어떻게 하겠지(하겠지)

(3) 자식에게 부담주지 않는 죽음

연구 대상자는 '복(福) 있는 죽음'에 대해 중병 또는 신체적인 장애로 인한 오랜 시간의 간병이 자녀에게 부담이 되고, 의존하게 되는 것을 싫어하였다.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속담에서도 보듯이 자녀와 좋은 관계에서 한을 남기지 않고 삶을 마감하고 싶은데, 혹시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예를 들어 치매와 같은 질환이나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등으로 인해 자녀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될까 걱정하고 이를 원치 않았다. 이것은 '고통 없는 죽음'과도 연관되어 죽어가는 과정에서 고통을 많이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긴 병으로 인해 가족과 주변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죽는 것을 '복(福) 있는 죽음'이라 이해하였다.

이와 같은 소주제의 의미 이해는 다음과 같은 근거자료로 설명할 수 있다.

- 나이가 먹으니까 죽을 때 아프지 않고 자식 성가시게 않고 깨끗하니 죽음이 되야(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 걱정 되야(된다)
- 자식덜(들)한테 부담을 주지 말고 그냥 그렇게 자는 듯이 가는 거 그거야
- 자녀들과 관계가 나빠지지 않고 좋게 지내시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좋아 보이더라구요
- 나도 자식들 힘들게 하고 싶지 않지... 그저 내 몸 내가 하다가 힘들게 하지 않고 우리 영감님한테 가고 싶지.....
- 행복하게 죽을라하면(죽을려 하면) 자식들한테 짐을 안 지고 가야 한다.

(4) 부모 노릇 다하고 맞는 죽음

연구 대상자는 '복(福) 있는 죽음'에 대해 삶에 대한 미련이나 한이 없이 임종을 맞는 것을 좋은 죽음이라 이해하였다. 그 중에서도 자녀에게 해야 할 부모 노릇을 다하여 자녀가 잘 사는 것을 이룬 후 죽는 것을 소망하였다. 따라서 자녀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상황(장애인 자녀), 자녀가 결혼을 하지 못한 경우,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다고 생각되는 경우의 죽음은 좋은 죽음이 아니라고 보았다. 즉 죽음을 맞이함에 있어서 미처 해결하지 못한 일을 남겨 놓을 경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정도가 높지만 그 중에서도 자녀와 관련된 미해결 문제에 대해 더욱 집착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소주제의 의미 이해는 다음과 같은 근거자료로 설명할 수 있다.

- 아들(장애인)이 이렇게 있어서 걱정이지 내가 죽으면 또 그것도 한갓시럽고(하찮은 존재가 된다)… 나 있어서 그제 죽으면 죽어도 편한데 내가 먼저 죽으면 그것도 걱정 이제(걱정이다)…
- 난 (자식 때문에) 아무런 한없이 돌아가시는 분이 잘 돌아가시는 분 같아요
- 부모가(내가) 이제 살만큼 살고 자녀들 교육 다 시키고 교육뿐 아니라 결혼, 성장 다 시키고… 이상 더 바랄 것도 없을 적에 부모(내) 연세도 많고 이럴 때…

(5) 고통 없는 죽음

연구 대상자는 ‘복(福) 있는 죽음’에 대해 고통 없이 죽기를 소망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표현이 ‘자다가 소리 없이 죽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만큼 죽기 전에 고통의 시간이 없거나, 짧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였다. 이는 우선, 노인이 죽음에 고통이라는 물리적 자극에 대한 불안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자율성 제한, 자녀에게 주는 부담, 인공심폐소생술 등에 의한 생물학적 생명연장의 무의미도 노인이 고통 없이 죽기를 원하게 하는 간접 요소로 보인다.

이와 같은 소주제의 의미 이해는 다음과 같은 근거자료로 설명할 수 있다.

- 그런 병이 없이 살다가는 거는 뭐 정말 좋은 운명이야
- 지금 가장 절실한 내 소원이 그냥 죽는 것… 한 일주일만 앓고 죽게 해달라는 게 내 기도 제목이야
- 우리가 살다가 안락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그 살아 있어야 사는 게 아니고 목숨만 붙어 있는 거지… 본인도 그걸 뭐 하러 사느냐 그래
- 31일간 아프지 않고 죽으면 행복한 할아버지가 된다 이거야… 그래서 죽는 거 사는 거 정리하고…
- 어느 날 딱 가는 그게 가장 행복이라니깐 그렇지 않고 어디가 아파 가지고 누워서 그야말로 대소변도 못보고 그러면…
- 열흘정도 입원해서 경과가 안 되면 그냥 집에 와서 3일 정도 누워서 물로 한모금 안 먹고 누워 있으면 그냥 간다고… 아주 편안하게… 그런 게 안락사야 그것을 유언장에 적어놔야 해

(6) 천수를 다한 죽음

연구 대상자는 ‘복(福) 있는 죽음’에 대해 적당한 나이에 죽는 것으로 보았다. 이를 천명 또는 천수를 다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천수의 기준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다른 연구를 보면 적어도 70세를 넘어 죽는 것(김신미, 2003)으로 보고 있고, 본 연구 대상자들도 70세 후반에서 80세 중반이 되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천수를 다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제 수명보다 너무 일찍 죽는 것을 복이 없다고도 보지만, 제 수명보다 길게 사는 것도 좋게 보지는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소주제의 의미 이해는 다음과 같은 근거자료로 설명할 수 있다.

- 그래도 호상이었어. 86세에 돌아갔으니까

- 내가 그만 살고 수명이 고거다 잠자듯이 가는 거는 운명적이야
- 오래 사는 것만이 복은 아니거든...
- 나이 먹은 만큼 먹었고 이제 가야지...

(7) 준비된 죽음

연구 대상자는 '복(福) 있는 죽음'에 대해 죽기 전에 유언, 유산 정리와 장례절차 등 삶에 대한 정리를 좋은 죽음으로 보았다. 이는 여성노인보다 남성 노인이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죽기 전에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특히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일주일에서 한달 정도를 갖는 것을 소망하였다. 또한 물리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죽기 전 남은 생애를 좀더 의미 있게 보내길 원하는 소망도 표현되고 있다. 시신을 기증한다거나, 좀더 타인이나 사회를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는 것을 통해 삶을 정리하려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는 노인의 일반적 심리적 특성 중의 하나인 유산을 남기려는 특성과 관련되어 사후에도 자신의 존재가 세상에 기억되고 소멸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와 같은 소주제의 의미 이해는 다음과 같은 근거자료로 설명할 수 있다.

- 우리 아들이 다 묘자리 다 해놓고...
- 한달 정도 아프면서 자식들이 효도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 유서는 적당한 시기에 하나 써야 될 것 같아요.
- ... 형무소 같은데서 징역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연설하고...교화시키고... 죽을 때는 시체를 병원에 기증했어요. 자기 죽으면 시체를 전부 해부해서 공부자료로 써달라고...
- 땅도 없고 돈도 없는데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화장이고 내는 저 뭐야 내 시신을 기증해 봤거든.

이상에서 제시된 7개의 소주제는 노인들의 '죽음을 맞이하는 상태',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 '죽음을 맞이하는 준비'에 대한 소망들을 담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죽음을 맞이하는 상태는 노인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주어야 할 모든 것을 해주었고, 노인의 죽음이 자녀에게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하며, 그리고 자녀가 있는 곳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것을 '좋은 죽음'으로 이해하고 있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손과 연관을 중요시하고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남·녀 노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았지만, 좋은 죽음의 의미를 자손과 연관시켜 이해하는 것은 특히 여성노인에게 더 강하게 나타났다.

둘째,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는 길게 아프지 않고,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살다가 죽는 것, 하늘에서 준 수명을 다 누리며, 고통 없이 잠을 자다 죽는 것 등을 소망하며, 죽음에 이르기 전에 병을 얻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로 인해 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거부하였다.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자유의지가 있을 때 안락사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는 기존 죽음 연구에서 노인이 죽음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연구와도 연결하여 노인이 죽음이 주는 고통을 두려워하고 불안해 할 수 있는 심리·정서적 특징과 비슷한 맥락을 갖는다고 본다.

<표 > '복(福) 있는 죽음'의 현상학적 이해

대주제	소주제	의미 있는 진술들
복 (福) 있 는 죽 음	부모를 앞선 자녀가 없는 죽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자손이 있잖아. 자손들이 있으면 그 자손들이 내 앞에서 흉한 꼴 안보이고 다 살아서 있는 게... 그게 호상이라고 생각해. • 내 앞에 거저(잘) 살아주면 끝나는 거야. 내가 오래 살기 때문에 내 앞에 나쁜 일만 안보고 잘만 살아주면... 밥 세끼 먹고 건강하게 살아 주면... • 우리 딸이... 내일이 우리 외손자... 둘째 딸(두번째 외손녀)이 생일이잖아. 그런 데 즈그 애미(저희 엄마)가 있으면 즈그(저희) 새끼 뭐라도 해 먹이라고 전화를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없어서(딸이 죽어서). 지금 육년 됐는데... 잊어버려야 되는데 못 잊어
	자녀가 임종을 지켜주는 죽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노인네 그 얼마나 호강이야 ... (중략)... 자식 앞에서 죽었으니 • 죽을 적에 어떻게 죽을까 걱정이지. 안들진(안하진) 않지, 그렇지만 자식이 있는 데 뭐 어떻게 하겠지(하겠지)
자식에게 부담주지 않는 죽음	부모 노릇 다하고 맞는 죽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이가 먹으니까 죽을 때 아프지 않고 자식 성가시게 않고 깨끗하니 죽음이 되야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 걱정 되야(된다) • 자식덜(들)한테 부담을 주지말고 그냥 그렇게 자는 듯이 가는 거 그거야 • 자녀들과 관계가 나빠지지 않고 좋게 지내시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좋아 보이더라구요 • 나도 자식들 힘들게 하고 싶지 않지... 그저 내 몸 내가 하다가 힘들게 하지 않고 우리 영감님한테 가고 싶지.... • 행복하게 죽을라하면(죽을려하면) 자식들한테 짐을 안 지고 가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들(장애인)이 저렇게 있어서 걱정이지 내가 죽으면 또 그것도 한갓시럽고(하찮은 존재가 된다)... 나 있어서 그제 죽으면 죽어도 편한데 내가 먼저 죽으면 그것도 걱정이제(걱정이다)... • 난 (자식 때문에) 아무런 한 없이 돌아가시는 분이 잘 돌아가시는 분 같아요 • 부모가(내가) 이제 살만큼 살고 자녀들 교육 다 시키고 교육 뿐 아니라 결혼, 성장 다 시키고... 이상 더 바랄 것도 없을 적에 부모(내) 연세도 많고 이럴 때...
고통 없는 죽음	준비된 죽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런 병이 없이 살다가는 거는 뭐 정말 좋은 운명이지 • 지금 가장 절실한 내 소원이 그냥 죽는 것... 한 일주일만 앓고 죽게 해달라는 게 내 기도 제목이야 • 우리가 살다가 안락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그 살아 있어야 사는 게 아니고 목숨만 붙어 있는 거지... 본인도 그걸 뭐 하러 사느냐 그래 • 31일간 아프지 않고 죽으면 행복한 할아버지가 된다 이거야... 그래서 죽는 거 사는 거 정리하고... • 어느 날 딱 가는 그게 가장 행복이라니깐 그렇지 앓고 어디가 아파 가지고 누워서 그야말로 대소변도 못보고 그러면... • 열흘정도 입원해서 경과가 안 되면 그냥 집에 와서 3일 정도 누워서 물로 한모금 안 먹고 누워 있으면 그냥 간다고... 아주 편안하게... 그런 게 안락사야 그것을 유언장에 적어놔야 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래도 호상이었어. 86세에 돌아왔으니까 • 내가 그만 살고 수명이 고거다 잠자듯이 가는 거는 운명적이야 • 오래 사는 것만이 복은 아니거든... • 나이 먹은 만큼 먹었고 이제 가지지...

셋째, 죽음을 맞이하는 준비는 미리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고, 삶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고 보며, 더 나아가 임종을 초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 것을 '좋은 죽음'이라 이해하고 있었다. 더욱이 이러한 태도가 개인적 삶을 뜻있게 마무리하는 의미도 있지만, 자신의 행실로 인해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기복(祈福)적 신념도 잠재되어 있다고 추측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대해 28개 의미 있는 진술, 7개 소주제 및 대주제를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7.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인 노인의 생생한 경험을 그대로 파악하고 그 내용들을 분석하여 노인이 의미하는 '좋은 죽음'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통해 노인복지의 실천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65세 이상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남·녀 노인 4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관찰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은 녹취한 면담자료를 읽으면서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에서 죽음에 대해 언급한 에피소드를 발췌하고 기술하여, '좋은 죽음'에 관하여 기록된 것을 Colaizzi(1978)가 제시한 질적 연구 방법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인 노인이 말하는 '좋은 죽음'의 대주제는 '복(福) 있는 죽음'으로 이해되었으며, 그 하위인 소주제는 7가지로 ① 부모를 앞선 자녀가 없는 죽음, ② 자녀가 임종을 지켜주는 죽음, ③ 자식에게 부담주지 않는 죽음, ④ 부모 노릇 다하고 맞는 죽음, ⑤ 고통 없는 죽음, ⑥ 천수를 다한 죽음, ⑦ 준비된 죽음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시 3가지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는데, 즉, 죽음을 맞이하는 상태,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 죽음을 맞이하는 준비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좋은 죽음'에 대해 연구된, 한나영·윤홍주·박일환·정유석과 유선미(2002)에서 나타난 결과 중 ① 적절한 수명, ② 무병사, ③ 자식이나 부인을 먼저 보내지 않고 죽는 것, ④ 자손들에게 폐 끼치지 않고 죽는 것, ⑤ 가족들이 다 있는 앞에서 죽는 것, ⑥ 자손들이 다 잘 사는 것을 보고 죽는 것, ⑦ 수면사, ⑧ 무통사로 죽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단지 부인을 먼저 보내지 않고 죽는 것은 본 자료에서는 언급되지 않았고, 가족이 다 있는 앞에서 죽는 것은 모든 자녀가 살아서 자녀가 임종을 지켜주는 죽음과 의미를 같이 한다고 보았다.

Kim과 Lee(2003)의 연구결과와 비교했을 때는 ① 타인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것, ② 가족과의 원만한 관계, ③ 장례준비라는 주제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Kim과 Lee(2003) 논문은 '좋은 죽음'에 대한 의미 이해지만, 대상이 간호사이고,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의미하는 '좋은 죽음'을 연구한 것이라 주제가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김신미, 이윤정과 김순이(2003)의 노인과 성인이 인식하는 '좋은 죽음'에 대한 양적연구에서 나온 결과 총 14개 중 ① 노환으로 사망하는 것, ② 1개월 미만의 임종기간, ③ 임종기 동안 가족과 함께 하는 것, ④ 유언 남기기, ⑤ 통증 없는 것과도 비슷한 주제로 나타나고 있다.

김은숙과 김귀분(2002)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소망에 대한 의미에서 10번째 소망으

로 ‘행복한 끝맺음’이라는 중심의미를 통해 나온 4가지 주제인 ① 편안한 죽음, ② 적절한 시기의 죽음, ③ 사후처리, ④ 죽음에 대한 완벽한 준비 등 모든 주제와 일맥상통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본 연구에서 나온 주제인 부모보다 앞선 자녀가 없는 죽음, 자녀가 임종을 지켜주는 죽음, 자식에게 부담주지 않는 죽음, 부모 노릇을 다하고 맞는 죽음 등은 이 연구에서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와 기존의 ‘좋은 죽음’에 대한 국내연구들과 비교하였을 때, 같은 의미를 가진 공통된 주제를 찾아냄으로써 한국 문화와 시대적 맥락에서 ‘좋은 죽음’에 대한 이해를 도출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한국의 복(福) 개념과 오복(五福) 개념의 마지막 복(福)인 ‘죽음에 대한 복(福)’과 연관하여 살펴보았다.

사람의 힘을 초월한 ‘운수’라는 뜻과 인간의 노력도 포함되는 한국의 복(福) 개념은 죽음에서도 복(福)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즉 죽음 또한 하늘에 내려준 운명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죽음을 준비하는 인간의 노력도 포함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오복(五福) 중 다섯 번째 복(福)인 ‘죽음에 대한 복(福)’은 인간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조건으로 보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좋은 죽음’은 곧 하늘이 주신 명을 다하여 사는 것으로 노인에게 있어 ‘복(福) 있는 죽음’은 삶의 마무리를 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과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민간에서 전해오는 오복(五福) 중 ‘명당에 묻히는 것’은 자손에게 받을 복을 위한 것임을 의미한다고 볼 때, 이는 본 연구에서도 ‘좋은 죽음’에 대해 자손과 연결하여 의미를 두는 소주제와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즉 자손에게 폐가 되지 않고, 자손에게 후회 없이 모든 것을 다해 주고, 자손들이 모두 있는 가운데 임종을 맞이하고, 죽어서도 자손들의 복을 기원하는 죽음을 ‘좋은 죽음’, ‘복(福) 있는 죽음’으로 한국 노인은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매우 사회복지의 정책과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좋은 죽음’이라는 개념이 연구대상자의 문화적,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한국적 상황에서 그 의미와 구성요소를 연구하는 상대주의적 연구시각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관련 연구들이 서구의 개인주의적 시각에서 접근하기보다는, 한국의 상황에 따라 차별되고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도출해 보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 방법 중 하나가 현상학적 연구라 할 수 있는데, 다만 양적 연구방법을 통해 검증하고 일반화하는 과정이 앞으로 더 필요하리라 본다.

둘째, 한국사회는 급격한 가족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문화로 한국사회의 노인은 삶에서 뿐만 아니라 죽음에 있어서도 자녀의 생존, 건강, 행복, 성공 등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한국 노인의 좋은 죽음은 자녀의 존재와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나 전통적인 농경사회를 바탕으로 강력한 가족주의를 이루던 과거와는 달리 근대화 이후의 한국 사회에서 자녀의 노인부양과 그에 대한 책임은 약화되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한국 노인들은 자녀에게 부양 및 간병 등의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지만, 노인 자신의 삶을 자녀와의 삶과 매우 긴밀하게 결합시켜 인지하며 그 의미를 중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한국노인복지의 정책 및 서비스를 수립하는데 노인 개인 중심에서, 성인자

녀 가족까지 확대하여 노인을 이해하는 시각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가족과의 정서적 연관성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바람직한 노인정책으로 보는 과오를 범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또한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우며 죽음에 대한 불안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유서작성, 유산과 유물정리, 장례절차 논의, 초상화 준비 등의 죽음 준비 프로그램,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죽음 교육 및 음악치료 등의 프로그램,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 자살과 안락사 등에 대한 생각들을 터놓고 표현함으로써 올바른 죽음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도록 돕는 프로그램 등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김귀분. 1977. "노인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조사".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김권섭. 2000. "양로원 노인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 연구".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김분한·김금자·박인숙·이금재·김진경·홍정주·이미향·김영희·유인영·이희영. 1999.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비교고찰 - Girogi, Colaizzi, Van Kaam 방법을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29(6): 1208-1220.
- 김순자. 1994. "한민족 노인의 죽음정위".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김신미·이윤정·김순이. 2003. "노인과 성인이 인식하는 '좋은 죽음'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23(3): 95-110.
- 김영규. 1988. "노인의 죽음준비교육이 죽음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협성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김은숙·김귀분. 2002. "노인의 소망". 성인간호학회지, 14(3): 438-448.
- 김태현·손양숙. 1984.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 한국노년학, 4: 3-19.
- 김혜련. 1991. "노인이 자각한 죽음에 대한 불안도- 유료 및 무료시설과 재가노인의 비교-".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박재현. 1990. "원한 노인환자의 자아존중감과 죽음에 대한 공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서혜경. 1987. "한미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 연구". 한국노년학, 7: 39-60.
- 성염 역. 1997. 인간의 죽음. Kubler-Rose, E. 1969. On Death and Dying. 분도출판사.
- 양혜정. 1991. "내외통제성과 사회적 지지에 따른 노인의 죽음불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이송희 역. 1995. 행복한 죽음.. Deeken, A 1988. 서울: 큰산
- 장미란. 1981.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조명옥. 1996. "한국인의 죽음 의식에 관한 연구". 중앙의학, 61(9): 725-745.
- . 1997. "노인이 인식한 죽음의 의미와 준비에 관한 문화기술적 탐색 사례연구". 한국노년학, 17(3): 1-35.
- . 1998. "노인이 체험하는 죽음의 의미". 중앙의학, 63(2): 137-156.
- 최영희. 1993. 질적 간호연구. 서울: 수문사
- 한나영·윤홍주·박일환·정유석·유선미. 2002. "좋은 죽음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 가정의학회지,

23(6): 769-777.

- Bell, B. D., and C. T. Batterson. 1979. "The Death Attitudes of Older Adults." *A Path Analytical Exploration*. Omega: 59-76.
- Benoliel, J. Q. 1991. "Multiple meanings of death for older adults(Ch8)." In Baines. E. M.(Ed), *Perspectives on Gerontological Nursing*. Newbury Park :Sage.
- Butler, R. N. 1975. *Why survive?: Being old in America*. New York: Harper and Row Co.
- Carolyn, Sarri. 1991. *The Creation of Meaning in Clinical Social Work*.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Colaizzi, F. U.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 It". in R. S. Valle, and M. King (Ed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New York : McGrow-Hill Book Co
- Hackett, A. T. 1971. "An Understanding of Death". A Matter of Life and Death to Them of Deans. Council Seminar E. T .S., 43(1): 1-17.
- Kalish, R. A.(1976). "Death and dying in a Social context."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 Binstock, R. H. and Shanas E.,(ed). van Nostrand Reinhold.
- Michael A. S. 1979. *Dying, Facing the Facts Social and Psychological Aspects of Dying*. N. Y.: Hemisphere Publishing.
- Parse, R. R., A. B. Coyne, and M. J. Smith. 1985. *Nursing Research- Qualitative Methods*. Bowie, Maryland: Brady Communicational Company.

Study on 'Good Death' that Korean Aged People Recognize - Blessed Death -

Kim, Mee-Hye

(Ewha Womans University)

Kwon, Kum-Ju

(Ewha Womans University)

Lim, Yeon-Ok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nd understand the meaning of 'Good Death' that the Korean aged people are generally thinking based on their values and the sentiments. For this purpose, we carried out individual and in-depth interviews with 40 aged persons living in Seoul taking their genders and social-economic status into consideration from March to May 2003. We applied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o this study. Eight graduate students were responsible for the interviews. They majored in gerontology or had experiences of field work with old persons. It took an average of one and a half hour and maximum of two hours for each of the interviews.

All of the processes of each interview were tape-recorded under the agreement with each interviewee. The main and sub themes from the data can be classified to seven categories according to the Phenomenological Approach designed by Colaizzi(1978). The main theme of good death that most of the interviewees considered was 'Blessed Death', very similar to 'Death Fortune' in the five good fortunes found in Korean tradition and the Confucianism. Also, the main concept is classified to seven sub-themes: ① Not seeing their children's death; ② Dying in front of their children; ③ Not to be a burden of their children during their lives; ④ Dying after doing all of their duties as parents; ⑤ Dying with no pain; ⑥ Completing the natural span of their lives; and ⑦ Prepared death. Thus, 'Blessed Death' that Korean aged people consider seems to be very closely related with the lives, health, happiness and success of their children. Based on the findings, we concluded that both social policy makers and social service providers are required to keep in mind the meanings of 'Good death' that most of the Korean aged people consider in order to help them enjoy successful aging during their remaining lives.

Key words: Korean Aged People, Phenomenological Approach, Good Death

[접수일 2004. 3. 4 게재확정일 2004. 4. 23]